

돈끼호테와 산초의 우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과

2012*****

민효진

목차

1. 서론
2. 『돈끼호테』에서 산초의 역할
3. 돈끼호테와 산초의 우정, 그 이상의 것
4. 결론

I. 서론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주인공이 있다면 주인공 옆에서 감초역할을 하는 조연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주인공보다 더 큰 존재감을 갖기도 하고 주인공의 행동이나 스토리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끼호테』에서도 주인공 이상의 존재감을 갖는 등장인물이 있다. 바로 ‘산초 판사’이다. 돈끼호테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고, 마지막에 그의 임종을 지키는 것도 산초이다. 둘은 다투기도 하고 의지도 하면서 기사도의 여정을 함께한다. 그렇다면 이 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인물의 동행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주인과 하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두 사람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다. 일단 돈끼호테와 산초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관계로 정의하기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보통 주인과 하인 사이라면 주인은 지혜롭게 하인을 부리고 하인은 주인을 섬기는 것인데 돈끼호테와 산초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돈끼호테는 산초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릴 때면 욱박지르고, 산초는 아무리 주인의 명령이라도 아니다 싶은 것에는 꼭 말대답을 한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투닥거리면서도 장면이 거듭될수록 서로를 인정하면서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둘은 어떤 ‘우정’을 나누는, 단순한 주인

과 하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돈끼호테』에서 산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돈끼호테와 산초의 조금은 특별한 우정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2. 『돈끼호테』에서 산초의 역할

산초는 어느 평범한 가정을 갖고 있는 농부였는데 돈끼호테가 섬의 영주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그와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된다. 영주가 된다는 환상에 가족을 뒤로 하고 모험을 결심하는 모습에서 산초의 속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산초는 매우 순수하고 착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산초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돈끼호테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따르고, 그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돈끼호테를 위해 달려들기도 한다. 결과는 항상 자신이 다치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순진해 보이는 산초는 의외로 꽤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돈끼호테 2권에서는 돈끼호테를 재미있게 읽은 한 공작이 여러 가지 일로 돈끼호테를 놀리다가 진짜 산초에게 '바라타리아'(Barataria)라는 섬의 총독을 맡기는데, 예상과 달리 산초는 상당히 유능하게 섬을 통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산초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겁이 많아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수습이 되고나니 자신은 영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총독 자리에서 스스로 사퇴하고 빈손으로 떠난다. 이때 그의 겸손함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존경한다. 이후 산초가 통치할 때의 법령은 그 마을에 "위대한 총독 산초 판사의 법령집"이라는 이름으로 된 책으로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산초는 1권에서의 모습과 달리 2권에서는 유식한 말들을 하거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는 등 작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산초는 돈끼호테와 비교 했을 때 보편적인 인물이다. 돈끼호테가 환상에 사로잡혀 무모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산초는 일단 돈끼호테를 말리고, 설득한다. 이런 부분이 돈끼호테의 광기를 더욱 부각시키는 장면을 만들고, 돈끼호테의 성격을 드러내기 쉽게 해준다. 먼저 돈끼호테와 산초는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돈끼호테가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인물이라고 할 때 산초는 그에 비해 비교적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풍차사건이다. 돈끼호테가 풍차를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산초는 소리치며 돈끼호테를 말리는 대목에서 그들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둘의 의견충돌이 있을 때 돈끼호테는 산초에게 기사도의 정신과 품위 따위를 거듭 강조한다.

“산초 이 사람아, 제발 입 좀 다물고 앞으로는 그저 자네 당나귀 모는 일이나 잘하게! 그리고 자네와 상관없는 일에는 끼어들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을 잘 듣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지금이든 앞으로든, 항상 기사도의 법칙에 따른 가장 정당한 행동이라는 거야. 세상에 기사로 살다 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기사도의 법칙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네.”¹⁾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규율을 바꾸기는 하지만 돈끼호테는 산초에게 충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볼 수 있다.

1)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 돈끼호테1, 민용태, 창비, 348쪽

두 번째로 돈키호테가 자신의 신념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타입이라면 산초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 예컨대 산초가 말을 잃었을 때 돈키호테에게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꽤 구체적으로 약속받는 장면을 보면 산초가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산초는 돈키호테가 무리한 행동을 계속하려고 할 때 특유의 기지를 사용하여 돈키호테를 잠시 진정시키고 묶어두는 방법까지 터득한다. 이렇듯 산초는 돈키호테의 광기와 무모함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3. 돈키호테와 산초의 우정, 그 이상의 것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은 외모도, 성격도 달라서 반대되는 면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듯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순박’하다는 것이다. 돈키호테는 돌시네아만을 사랑하며 주변사람들의 속보이는 놀림과 꼬임에도 그대로 믿고 당한다. 산초도 돈키호테의 터무니없는 말에 설득당하여 모험을 떠나는 것만 보아도 순박한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돈키호테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에도 ‘우리 주인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이 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덤앤 더머’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다.

신기한 것은 작품의 초반부에는 돈키호테가 산초를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했다면 뒤로 갈수록 산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묻기도 한다는 것이다. 산초가 자신의 말에 판지를 걸 때마다 창으로 내려치며 화를 내지만 항상 산초를 곁에 두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산초를 시키는 등 산초를 동반자로서 믿는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는 1권에서 돈키호테가 그의 친구인 이발사와 신부에 의해 절장에 가두어질 때 볼 수 있다.

“어떻든지 간에,” 산초가 말을 받았다. “소인 생각에는 더 확실하게 속 시원히 알아보려면 나리께서 한번 시험 삼아 이 감옥에서 나와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소인도 있는 힘을 다해 도와서 거기서 아주 꺼내드리려고 애쓰겠습니다요. 그래서 한번 나리의 그 좋은 로신안떼 위에 다시 탈 수 있을지 시험해 봅시다요. 로신안떼도 위에 우울한 표정으로 슬프게 걸어가는 걸 보니 역시 마법에 걸리지 않았나 싶네요. (중략) “나는 기꺼이 자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네 산초 이사람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²⁾

이렇게 돈키호테는 산초의 의견을 수용하고 산초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도 한다. 작품 초반에 이상과 낭만을 추구하는 돈키호테가 식량 걱정만 하고 두려움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산초와 자주 다투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2권에서 산초도 무슨 애착이 생겼는지 돈키호테가 백색 달의 기사에게 패하고 앓아눕자 ‘주인어른, 빨리 모험 가서야죠’ 라고 말하며 돈키호테를 위로한다. 그 이전에도 산초는 거울의 기사의 종자와 얘기하며 돈 키호테가 아이 같은 인물이라 좋아하며, 걱정돼서 쫓아다닌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둘의 사이는 단순히 믿음의 깊은 주인과 하인 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서로를 의지하기도, 걱정하는 것이 두 사람을 ‘친구’라는 말로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친구’는 비슷한 나이가거나 같은 신분끼리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2)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 돈 키호테1, 민용태, 창비, 744쪽

나도 둘 사이의 교감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친구이다. 더군다나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낸 사이라면 우정의 깊이는 더 깊어진다. 내가 겪은 고통을 상대방이 알고, 상대방이 고민한 문제들 역시 나도 고민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함께 겪은 사람들은 더 끈끈한 동질감을 갖는다. 돈끼호테와 산초도 힘든 여정을 떠나면서 누구보다 그들에게 닥친 위기들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우정에는 돈끼호테의 오랜 친구인 이발사와 신부도 낄 수가 없다. 헛수로 보면 이발사와 신부가 훨씬 오래되었지만 광적인 모습을 보이는 돈끼호테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는 자신이 모습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친구인 것이다. 신부와 이발사가 돈끼호테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은 잘 나타나 있고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돈끼호테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기사도 책을 불사르고 정상인으로 돌려놓을 생각뿐이었다. 우리가 직언을 하는 친구보다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듯이 기사도에 폭 빠진 돈끼호테에게는 산초가 더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산초 역시 처음엔 황당한 시선으로 돈끼호테를 보지만 점점 돈끼호테를 ‘우리’ 주인님이라고 칭하며 애정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산초는 ‘혀에 종기 났다고 암탉이 죽나요? 오늘이 너한테 좋은 날이면 내일은 나한테 좋은 날이고, 오늘 넘어진 사람이 내일 일어설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돈끼호테를 격려하고 힘을 불어 넣어준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점점 닮아가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 간다.

III. 결론

둘의 모험은 돈끼호테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죽음을 앞두면서 끝이 난다. 사실 나는 책을 읽는 동안 돈끼호테가 바보 같고 고집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졌고, 괜히 돈끼호테를 따라가서 고생만 하는 산초가 불쌍했다. 그래서 이발사와 신부처럼 돈끼호테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돈끼호테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기사도 모험을 떠난 것을 후회할 때 뭘지 모를 섭섭함을 느꼈다. 그리고 산초에게 자신처럼 미치광이로 보이게 해서 미안하다며 고해성사 하는 모습은 애잔함까지 느끼게 했다. 자신의 이상을 찾아 모험을 떠났던 그가 쫓았던 목표를 잃고 오히려 그 목표를 혐오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산초는 돈끼호테의 죽음 앞에서 ‘사람이 태어나 이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미친 것은 아무도 죽이지 않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거다’라며 제발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울부짖는다. 돈끼호테의 이상을 함께 찾아나갔던 산초였기에 그의 죽음을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모험을 하는 동안 고생만 했던 산초이지만 산초도 분명히 모험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얻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둘의 모험은 끝이 났지만 함께했던 시간은 가슴 속에 깊이 남을 것이다. 다치고 깨지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돈끼호테와 산초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영웅이었고 좋은 지원군이였다. 『돈끼호테』는 ‘산초’라는 캐릭터가 없었다면 ‘한 기사의 광기어린 모험’이 지루하게 그려졌을 것이다. 돈끼호테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지만 그 옆에는 말 많고 겁 많은 산초가 있었다. 그래서 맞고 부서지고 깨지면서도 힘든 고행을 계속해나갔고 그의 모험은 산초 덕분에 조금은 덜 외로웠을 것이다.